

주일예배 현황(1.27)

주일예배			목요일예배
1부	2부	계	227
35	140	175	

교회학교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계
5	18	18	18	59

구역보고(1.27)

구역	모인곳	인도자	인원	헌금	점수
창동1	박순자	김영자	2	10000	1440
창동3	성윤숙	오정관	5	25000	1800
창동5	교회	권영자	3	10000	990
창동6	임경숙	임경숙	4	12000	980
창동7	손옥자	윤계식	4	22000	2500
창동8	함금녀	장정옥	4	26000	1460
노원	권오장	김복희	2	10000	520
장위	최광식	변인수	5	18000	1870
성북1	한봉서	나화경	7	18000	1770
성북2	강대영	최병호	4	20000	930
남부	박찬희	박영옥	2	10000	1320
총인원	42	헌금	181.000		

향기로운 예물(1.27)

십일조	강장환/박순자 김매림 김방훈/이경희 김숙자 김인숙 손옥자 박경남/전순덕 송청금 엄성일 이영애 정효기/임경숙 무명2 조남래/김귀자
감사	강암우 강장환/박순자 김덕례 김방훈/이경희 나화경 남윤상 백성칠/목인자 송청금 안병남 오정관 장정임 정재만 정훈 최영희 무명
특별	김석환/육수남 꽃꽃이 김서애/김보애
인재양성	강장환 김익기 홍기철/김인숙
선교	강장환 김성웅/변인수 김익기/함영순 박영옥 송청금 이영애 이상현/고소선 이정민/김영자 정명희 정효기 성북1구역 장위구역 드보라여전도회 한나1여전도회
건축	은유금 이영애 임봉남 정효기 드보라여전도회

서로 사랑하는 가정

찬양과 경배(Worship) : 453장,305장
말씀과 삶(Word) - 본문 : 고린도전서 13:1-13 (신 279면)

성경말씀은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1~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요, 5~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사랑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 제일 으뜸은 사랑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 중 가장 먼저 맺히는 것 역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이 다른 가정과 구별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볼 때 두말할 필요 없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필요성(탁월성)입니다

1~3절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꿩고리 같이 듣기 싫은 소음 공해입니다. 또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믿음이 아주 좋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물질을 다 주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 사랑이 없다면 열매는 없습니다. 사랑 없는 신앙생활은 외식입니다. 사랑은 어떤 은사보다 더 가치가 있고 탁월합니다.

사랑의 본질(특성)입니다

4~7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닌 동사에 가깝습니다. 사랑은 본문에서 "하리"고 한 7가지 긍정적 명령은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말라"고 한 8가지 부정적인 명령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 합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수고하는 희생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수고와 희생의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4절은 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7절은 참고 견디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잘 참아주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우리가족은 서로 참고 이해하고 견뎌주는 좋은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영원성(온전성)입니다

8~13절에서 다른 은사들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믿음과 소망도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사랑은 이 땅과 저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 합니다. 사랑은 지금 우리들이 부분적이고 희미하고 어린아이처럼 유치하지만 결국 온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주님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던 것도 주님이 나를 알듯이 나도 주님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 점점 식어지지만, 우리가정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주님 허락해주신 우리가정을 통하여 귀한 힘을 공급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과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울동산교회

서울시 도봉구 창 4동 14-4 동산빌딩
www.dongsan21.org
T.(02)900-2231~2 FAX.(02)995-9670

시무장로 최병호 정재만 오정관 백동선
은퇴장로 강장환
지휘자 1부-권현목 2부-김영진
피아노 1부-한혜진 2부/3부-박예니 수박예니 금-김인혜 특-한혜진
전자オル간 1부-홍혜진 2부-임경숙

주일1·2부 예배 1부 9시 30분 / 2부 11시 30분

인도/설교 기동연 목사

- * 입례송 찬양하라 내 영혼아
- 기도인도 1부 문용현 집사
- 2부 최병호 장로
- 찬송 13장 기뻐하며 찬양하세
- 성서교독 제5문 시편 13편
- 신앙고백 사도신경
- 봉헌찬송 316장 목마른 자들아
- 봉헌예물 설교자
- 봉헌기도 시편 126:1-6 (구 897면)
- * 성경봉독 1부 호산나 찬양대
- 찬양 2부 할렐루야 찬양대
- 말씀선포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 기도 509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 * 폐회송영 설교자
- * 축도
- 성도의 교제&교회소식

*표는 헌신의 뜻으로 일어섭니다.

교독문 제5문 시편 13편

인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회중: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인도: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회중: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궁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인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회중: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인도: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회중: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주일3부 예배 오후 2시 30분

- 사회 백성철 집사
- 찬송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 기도 김길용 집사
- 찬송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 성경 창 35:16-21 (구 54면)
- 설교 최규창 집사
- "야곱의 축복"

- 기도
- 찬송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 주기도문
- 교회소식

수요일예배 저녁 7시 30분

설날가정예배로 드립니다.

목요일예배 오후 1시 30분

명절인 관계로 쉽니다.

금요일기도회 저녁 9시

설날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새벽기도회 매일새벽5시

- 인도 강암우 목사

동산소식

- 사랑이 넘치는 서울동산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목사님 청빙을 위해 온 교우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주일 12부 예배
 - 기동연 목사님(現 고신대학원 교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 주일 3부 예배
 - 최규창 집사님(現 전국 IVF 협동간사)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 공동의회
 - 다음주 2부 예배 후 담임목사님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 수요일예배/금요일기도회
 - 설날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 교우소식
 - 김정선 집사 입원:상계백병원
 - 박진우 어린이(박순배/이은옥 집사 자녀)입원:한일병원 신관 590호
- 목요일예배&목요일전도
 - 명절인 관계로 쉽니다.
- 2008년 서울동산학사 신입생 모집
 -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추천해 주십시오.
 - ① 서류안내: 합격증 또는 재학증명서, 당회장추천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가정환경, 신앙생활 포함)
 - ② 접수안내: Fax)02-995-9670, E-mail)ymohe@hanmail.net
 - ③ 문의전화: 018-268-9020(문용현 집사)

다음주 예배기도당번 (2.10)

- 1부 : 김종국 집사 • 2부 : 오정관 장로
- 3부 : 임정수 집사 • 수요일 : 윤계식 집사

예배모임안내

주일1부	09:30	7층	영아부	11:30	6층
주일2부	11:30	7층	유치부	09:30	6층
주일3부	14:30	7층	유초등부	09:00	6층
목요일예배	13:30	7층	중고등부	11:00	6층
노방전도	14:00	6층	청년부	13:30	6층

2월 봉사위원

- 안내위원 1부 정효기 집사 김인옥 집사 2부 김성웅 집사 장송희 권사
- 현금위원 1부 정효기 집사 김인옥 집사 2부 김성웅 집사 장송희 권사